

위종양성병변에서 절개박리법(incision & dissection)을 이용한 위점막절제술의 적응 확대에 대한 연구

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, ¹소화기연구소

유창범, 한대회, 정성원, 정인섭, 고봉민, 권계원¹, 진소영¹
홍수진, 조주영, 이준성, 이문성, 심찬섭, 김부성

(배경 및 목적) 내시경기기의 발달로 인하여 위종양성병변에서 점막절제술이 많이 시도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다양한 방법의 부속기구들의 발달로 인하여 절개박리법을 이용하여 직경 2 cm 이상의 큰 병변의 일괄절제가 가능하게 되었다. 따라서 그 적응증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나 시술자의 숙련을 요하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. 연구자들은 이러한 절개박리법을 이용한 위점막절제술의 유용성과 한계점을 분석하였다.

(대상 및 방법) 2001년 2월부터 2004년 4월까지 본 교실에서 위편평선종과 조기위암으로 진단되어 위점막절제술을 시행하였던 144명의(남 : 여=97 : 37, 평균연령: 60.99세, 선암: 82예, 이형성증: 69예) 151병소를 대상으로 하였다. 방법에 따른 시술시간, 일괄절제율, 완전절제율, 합병증 및 재발율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.

(결과) 1) 시술시간은 평균 103분 30초였다. 2) 병소의 크기에 따른 일괄절제율과 완전절제율은 직경 11에서 15 mm 병소에서 각각 90% (9/10), 70% (7/10), 직경 16~20 mm의 병소에서 각각 94.1% (32/34), 82.3% (28/34)이었으며 직경 21~30 mm 병소에서는 89.1% (49/55), 87.3% (48/55), 31 mm 이상에서는 84.6% (44/52), 82.67% (43/52)이었다. 3) 재발율은 3.5% (5/144)이었다. 4) 합병증은 출혈 15.9% (23/144), 천공은 4.86% (7/144)이며 이로 인한 사망 1예였다.

(결론) 절개박리법을 이용한 위점막절제술은 비교적 큰 병변에서 완전절제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나 출혈, 천공과 이로 인한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으므로 고도의 숙련을 요한다.

Key Words: 절개박리법, 위점막절제술